

# 국민·바른 통합 급물살에 정치권 섹법 분주

### 민주당, 국회 운영 여건악화 우려 개혁연대 행보 '관심'

### 한국당, 통합과정 속 바른정당 의원 2~3명 복당 기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작업이 본격화하자 이를 바라보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양당의 통합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자당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양당의 통합이 정치권 재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통합 이후의 국회 의석 구조 및 원내 구도 변화 여부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그동안 예산과 인사, 법안 등 중요 고비 때마다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던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합칠 경우 국회 운영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 곤혹스런 분위기도 감지된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21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쳐질 경우 원내 현안에 대한 통합당의 입장은 정부·여당에 반대만 하

는 한국당에 더 가까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의 또 다른 고민은 양당 통합 과정에서 국민의당이 분당 상황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데 있다. 안 대표의 통합구상에 결사적으로 반대해 온 호남 중진 중심의 '평화개혁연대' 소속 의원들이 탈당해 새교섭단체(기준 20명 이상)를 구성할 경우 지금과 같은 '4당 체제'가 유지되지 않지만 국회 운영은 훨씬 더 복잡한 고차방정식으로 흐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민주당 내에서는 평화개혁연대 세력이 과거 한술밥을 먹은 식구인데다 같은 호남을 지지기반으로 하면서 남북관계 및 개혁 방향에 대한 인식이 같아 민주당 반대 세력이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만약 평화개혁연대가 교섭단체를 구성하면 민주당(121명), 정의당(6명), 민중당(2명), 국회의장(1명)까지 포함해 이른바 개혁 블록이 150석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 이는 점에서 기대하는 부분도 있다. 나아가 우상호·설총원 의원 등 민주당 일각에서는 아예 국민의당 호남 의원 등과의 부분통합 필요성까지 거론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당의 일반적 기류는 당장 통합을 모색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민주당 후미에 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호남 출신 국민의당 의원이 돌아오면 받아줄 거냐'는 질문에 "타당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제가 눈길을 준 바도 없고, 눈길을 앞으로 줄 이유도 없다"고 단언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태도에는 호남 출신 국민의당 의원이 복당할 경우 당이 다시 소란스러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배경에 깔려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는 국민의당 호남 의원들이 추후 복당하게 된다고

해도 그 시점은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다만, 중도통합 과정에서 바른정당의 일부 의원들이 추가로 한국당으로 돌아가면서 원내 1당의 자리를 위협받을 경우 민주당의 가류도 바뀔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한국당은 양당의 통합 과정에서 바른정당 의원들의 추가 복당 가능성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른바 '이삭줍기'를 시도하겠다는 것이다.

한 핵심 당직자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당대당 통합을 하더라도 지역구 정서나 개인 성향상 국민의당으로 못 가는 사람들이 분명 있다"며 "이합집산 과정에서 한국당으로 돌아오는 의원들이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한국당 지도부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간 통합 추진 과정에서 자당으로 넘어올 수 있다고 보는 바른정당 의원 수는 2~3명 정도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손학규 "중도통합 힘 보태겠다"

### 미국서 귀국...역할 주목

국민의당 손학규 상임고문은 21일 "현시점에서 국민의당의 역사적 책무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연합정치를 제도화하는 것"이라면서 "제7공화국 건설에 중도통합세력이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달여 간의 미국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손 상임고문은 이날 "당을 살리기 위해 나의 마지막 티끌 같은 힘이나 마 보태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파괴와 통합은 우리의 시대적 과제로 파괴를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열고 통합을 통해 간격을 없애고 외연

을 넓혀야 한다"면서 "촛불 정치는 적폐청산이며 우리 정치의 가장 큰 적폐는 제왕적 권력"이라고 말했다.

손 상임고문은 중도통합세력과 관련, "결코 보수통합이 돼선 안 된다"면서 "정치·사회적 적폐를 해소하고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내는 개혁적인 중도통합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바른정당과의 통합문제를 둘러싼 당내 갈등과 관련, "통합을 위해선 당내 화합이 기본이고 우선"이라면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통합에 반대하는 의원님들도 나름의 진정성이 있었을 것으로 좋은 방향으로 매듭지어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최재형 "국정원 감사 강화해야"

### 감사원장·민유숙 대법관 '적격'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1일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해 '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여야 청문위원들은 보고서에서 "최 후보자가 최고감사기관의 수장인 감사원장으로서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능력과 자질을 갖췄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청문위원들은 "최 후보자는 감사위원 제정권 행사 등에 대해 소신있는 입장을 밝히지 못했다"며 "감사원장 후보자로서 인사청문 준비에 철저하지 못했고, 헌법 개정 시 감사원의 소속과 지위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아쉬워했다. 그러나 청문위원들은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에 대한 감시 의지를 피력했고, 대통령 수사보고 제도의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자체 감사 등 감사원 전반의 제도 운영을 개선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경남 김해 출신인 최 후보자는 경기도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6년 사법연수원 13기로 판사에 임용된 후 대전지방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 사법연수원장 등을 지냈다. 사법연수생 시절 거동이 불편한 동료를 2년간 업고 출퇴근시킨 일화가 있다.

한편,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민유숙(52·사법연수원 18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여야 청문위원들은 보고서에서 "후보자는 약 28년 동안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재판 업무를 통해 법이론과 실무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대법관으로서의 능력이 인정된다"고 평가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빈손 국회 현실로...여야 또다시 "네 탓이오"

### 與 "법사위 역할 수정 법 발의"

### 한국당, 임종석 UAE 방문 비난

### 국민의당 개헌·정개혁위 통합 제안

12월 임시국회 종료로 앞두고 있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자 여야는 21일 네 탓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빈손' 국회의 주범으로 한국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를 지목하며 법사위 역할 전면 수정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을 '원전 게이트'로 규정하며 반격에 나섰다.

국민의당은 여야 간 핵심 쟁점인 개헌특위와 정개혁위 활동시한 연장 문제와 관련, 두 특위의 통합을 제안하며 양당을 압박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임시국회 들어 지난 20일 첫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전체 900여 건 가운데 고작 31건만 처리했다"며 "국정 수행에 바쁜 국무위원을 모조리 출석시키고 대국민 의혹을 부풀리기 하는 정치공세로 급속같은 시간을 낭비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의 자구 심사를 왜 안 하느냐. 법사위는 무슨 상임위냐"며 "민생개혁 발목 잡기 수단으로 변질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개혁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곧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일 좀 합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위원회 박범계 위원장과 소속 의원들이 21일 국회 정문관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주민·신경민·진선미·박범계·백혜련·표창원·이재정 의원. /연합뉴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한국당이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를 대선 때 공약해놓고 이제 와 말을 바꾸고 있다"며 "개헌특위를 연장하려면 별도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만일 한국당이 내년에 개헌을 추진할 의사가 없다면 이 예산 집행부터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임종석 비서실장의 특사 의혹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들먹이며 관계가 소원해져서 뒷수습 차원에서 급파했다고 하는데, 이야말로 뒤집어씌우기도 유분수"라며 청와대의 전날 해명을 반박했다. 이어 "특사 의혹의 진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UAE 간 뒷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판단하고 뒷조사를 하다 일어난 참사"라며 "문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든지 핵심 측근이 와서 사과하지 않으면 그냥 잊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임 실장이 갈 수밖에 없었다는 현

지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도 "원전 게이트는 밝히지 않을 수 없는 상태다. 이전 대통령과 UAE 왕세제의 친분을 문재인 정권이 안다면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가세했다.

제3당인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국회 개헌특위와 정개혁위의 통합을 거듭 제안하면서 "합당한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與 "대통령 권한 분산 필요"

### 개헌 의총 마무리

더불어민주당이 헌법 개정 관련 마지막 의원총회를 21일 마무리하고 당론 결정을 위한 절차에 돌입한다. 내년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 동시 실시를 추진 중인 민주당은 이날 개헌 관련 의총에서 대통령 권한 분산 필요성에 원칙적인 공감대를 형성했다.

민주당 강훈식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헌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 분산이 필요하다"는 데 대체로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총에서는 대통령의 내각 임명권을 유지하되 의회의 국무총리 추천제

등을 도입하는 '협치형 대통령제'와 국무총리에 대한 불신임 제도를 수반하는 독일형 내각책임제, 4년 중임제를 축으로 하는 권력분산형 대통령제 등에 대한 발제가 이어졌다. 그러나 구체적인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의견 수렴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 대변인은 또 "의총에서 상시국회 운영 도입에 대체로 공감했고, 휴회 기간 명시 등 구체적인 부분은 조금 더 논의하기로 했다"며 "비준 조약체결에 대한 국회 동의권 강화에도 공감했고, 조약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데에도 동의했다"고 발표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2018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편입생모집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 학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학과	모집인원
인문	신 학 과	18
	국제한국어교원학과	1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2
	유아교육과	2
예능	음악 학 과	5
	실용음악학과	4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국제한국어교원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 2018. 1. 6(월) ~ 1. 9(화)  
 • 전 형 일 : 2018. 1. 16(화)

## 편 입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학과	모 집 인 원		
		정원내	정 원 외	
		일반편입 (3학년)	학사편입 (3학년)	유치원교사 양성 관련학과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편입학(3학년)
인문	신 학 과	○	○	
	국제한국어교원학과	○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		
	유아교육과	○	○	○
예능	음악 학 과	○		
	실용음악학과	○		

\* 음악학과 전공 ▶ 피아노, 성악, 관·현악(타악, 클래식기타 포함), 오르간, 작곡, 교회음악  
 \* 실용음악학과 전공 ▶ 드럼, 기타, 재즈피아노, 보컬, 베이스, 색소폰, 작곡, 미디(레코딩), 싱어송라이터 등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8. 1. 8(월) ~ 17(수)  
 • 전 형 일 : 2018. 1. 23(화)

## 신학대학원 편입

### ▶지원자격 및 모집인원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신학 관련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 아래 세부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 (단,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신학연구(학)과(M.A.T.) 재학, 수료, 졸업자 포함)

모집학년	모집인원	지원자격
2학년	○명(주·야)	3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2학기 이상 수료
3학년	○명(주·야)	6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4학기 이상 수료

###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8. 1. 8(월) ~ 1. 17(수)  
 \* 서류심사 관계로 제출서류는 기간 내에 등기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한다.  
 • 전 형 일 : 2018. 1. 23(화) 오후 2시 30분

## 대 학 원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 전형일정

① 원서접수 : 2018. 1. 26(금) ~ 2. 2(금)

② 전 형 일 \*모집학과 및 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대 학 원	과 정	모 집 학 과	모 집 인 원	전 형 일 시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	2018. 2. 6(화) 오후 2:30
	박사	유아교육학과(D.Ed.)	○	2018. 2. 6(화) 오후 2:40
일반대학원	석사	신학과(Th.M.)	○○	2018. 2. 6(화) 오전 9:40
		유아교육학과(M.Ed.)	○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	
		사회복지학과(M.S.W.)	○	2018. 2. 6(화) 오후 2:40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평생교육학과(M.Ed.)	○	
		한국어교육학과(M.Ed.)	○○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학과(M.Ed.)	○○	
		음악학과(M.A.)	○	
음악대학원	석사	실용음악학과(M.A.)	○	

입학문의 ▶ 학 부 0621605-1114  
 대학원 605-1115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 36